

시론



강 동 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사)생명존중 지구
총연대 뇌건강치과 시연연구소 대표

사람은 존재를 꽃 피우는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연금술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
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그리
고 깊은 사랑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
경화학적 파동을 일으켜 다른 생명체의 존재
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 다른 존재에게 전이돼 세상 곳곳에 보
이지 않는 공감의 꽃밭을 만들어가는 거대한
생태적 순환의 시작점이 된다.

이 진실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
다. 코로나19 시절, 사람들의 우울과 고립이
공기를 채울 때, 호접란 한 그루 역시 세상의
숨결을 닮은 듯 꽃을 틔웠다.

그러나 어느 날, 시인이자 화가인 한 분이
꽃에 말을 걸었다. “난아, 꽃을 피워보렴. 네
가 꽃을 피우면 시를 써줄게.” 그 이후 그는
물을 주고, 다양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나누
며 사랑을 줬다. 인간의 마음과 꽃의 생리 사
이에는 언어를 넘어서는 공감의 진동이 있었
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느 날, 두 개의 꽃봉
오리가 생겼다.

며칠 후, 마침내 꽃이 피었다. 그 순간 그는
약속대로 ‘호접란의 꿈’이라는 시를 지어줬
다. 그 후 다시 말했다. “너는 원래 다섯 송이
를 피었잖니. 더 피우면 이번에는 그림으로
널 남길게.” 그 말이 전류처럼 통했을까, 꽃
은 봉오리 세 개를 더 띄우며 피어나 마침내
다섯 송이를 만개해 냈다. 그리하여 탄생한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 XX

- 사랑은 존재를 꽃 피우는 연금술(1)

그림 ‘호접란의 꿈’은 무등갤러리에 전시된
후 선량한 평화운동가에 의해 구매돼 매주
월요일 니체 철학을 공부하는 카페 필로소피
아(지도교수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
수) 공부 방에 전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받은 존재만이 꽃
을 피운다.”

호접란이 사람의 사랑에 반응해 꽃을 피운
것은 그 사랑이 가진 에너지의 진동수가 꽃
의 생체 리듬과 공명했기 때문이다. 이때 인
간의 뇌에서는 옥시토신, 세로토닌, 그리고
감마파의 안정된 리듬이 형성된다. 그 리듬
은 다시 식물의 성장 조건에 영향을 준다. 이
것이 바로 ‘공감의 뇌’가 만들어내는 생태적
깨달음이다.

즉 사랑이란, 특정한 신경 패턴으로 뇌 안
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은 외부 환
경에 생리적 파동으로 번역돼 타 생명체에
감응을 일으킨다.

김춘수 시인의 시가 떠오른다. “내가 그
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
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
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의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즉 존재를 인식하고 소환하는 의식의 빛은
상대방의 뇌에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
유대감 형성에 이바지하는 강력한 신경 연
어이다.

영화시중의 미소는 가장 오래된 신경학적
은유로 전해진다.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
중 연꽃을 들어 보였을 때 오직 가섭만이 미
소 지은 것은 부처의 의식을 언어적으로 이
해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의 진동에 동조한
것이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러한 직관적 공
명을 뇌의 공명 현상으로 설명하며, 공감과
관련된 신경 네트워크가 활성화됐음을 시사

한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
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오늘날
진흙탕과 같은 온갖 욕망의 소음에 시달려
빈곤해진 마음이 미소의 공명으로 충만해진
다.

미소는 뇌의 미러 뉴런(Mirror Neuron)
체계에서 출발하는 강력한 공명 회로이다.
상대의 미소를 보는 순간 우리의 구강안면
운동피질이 자신이 미소 지을 때와 같은 전
기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미소와 자비심의
전달은 자신의 신경 패턴을 타자의 진동에
맞추고 그 리듬을 안정시켜 하나의 조화로운
생태계로 편입하려는 공명 능력을 조화시키
는 과정이다.

호접란의 꿈과 김춘수 시인, 그리고 영화
시중의 꽃은 시공을 초월해 공감을 통해 생
명이 진화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 꽃은
언어 없이도 가르치고, 설명 없이도 치유의
힘을 갖는다. 한 송이 꽃이 피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뇌 속에서 새로운 뇌가소성이 만들어
지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뇌건강 치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입과
얼굴은 이러한 사랑의 연금술이 가장 직접
적으로 표현되는 공간이다. 미소를 짓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영역을 통해 이뤄진다. 건
강한 구강은 단순히 기능적 완성을 넘어,
사랑을 전달하는 신성한 통로가 되는 것이
다.

사랑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실현하는 공극의 진리다. 오늘 당신이 누군
가에게 건넨 사랑의 말 한마디, 미소가 어떤
꽃을 피울지, 그 꽃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지 상상해 보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
는 이유이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의미
가 아닐까.

자치칼럼



김 병 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은 결국 ‘지역 주민
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오늘날 행정 혁신의 속도는 기술
변화보다 빠르게 요구되고 있다. 인공지능
(AI)은 더 이상 주변 기술이 아니라 지방정
부 행정의 방향과 시민과의 소통 방식 자체
를 혁신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기존 행정이 ‘사람 중심’으로 설계돼왔
다면, AI 시대에는 ‘데이터 중심’ 설계로 전환
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AI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현장에
서 변화를 실행하는 실질적 주체가 되어만
한다. AI 시대의 지방정부 경쟁력은 기술 자
체가 아니다. 현장의 실행력, 변화에 대한 적
응력,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 역량에 달
려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AI 시대에 잘살기 위한 지방정부의 선택

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AI의 핵심은 데
이터이며,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부
서별로 흩어진 정보를 연계·표준화하고, 예
측 행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
통·복지·환경 등 각종 데이터를 통합하면 노
인 이동권 보장, 미세먼지 대응 등 다양한 지
역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서 정책 결정의 문화 자체를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는 AI 정책을 총괄하
는 조직, 분야별 전문가(기술, 데이터, 윤리
등)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융합형 조직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부서별로 흩어진
디지털 사업이 중복과 비효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공무원 개개
인도 단순 집행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읽고
활용하는 문제해결형 전문가로 성장해야
한다.

AI를 행정에 적용할 때는 무엇보다 시민
의 신뢰를 중시해야 한다. 복지대상 선정, 도
시 안전 관리처럼 민주성과 공정성을 요구하
는 분야에서는 기준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하고,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
여하는 AI 윤리·거버넌스 위원회 도입이 확

대되고 있다. 시민이 직접 문제를 제안하고,
AI로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시민 참여형 리
빙랩(Living Lab)’도 지방정부 혁신 현장의
핵심적 방식으로 자리잡는 추세다.

아울러 AI는 행정의 효율만 높이는 기술
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혁신 생태계에 큰 기
회를 제공한다. 지방정부는 대학, 스타트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다양한 공공문제 해결
형 AI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농촌·해안 도시
등 특성과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지방정부
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지역 기업에 개방
하고, 민·관이 함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갈
때 AI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동력
이 될 수 있다.

결국 AI 시대의 행정 혁신은 기술 도입 자
체가 아니라,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행
정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
며, 기술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
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기술보다 신뢰라는
점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변화의
최전선에서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AI 행
정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며 지역을 혁신하
다면, 진정한 의미의 ‘AI 지방정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투고



며칠 전 경기 부천 제일
시장에서 60대 운전자가
운전하는 트럭이 갑자기
돌진하여 21명의 사상자
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예방
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다.
정부에서는 2019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교통안전교육도 2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치매 검사를 받
도록 하여 적성 여부를 판단 받도록 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은 신

체적 노화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노화로 가용시각
장의 범위가 축소돼 추 후방에서 출현하는
장애물에 대한 대처가 어려우며, 정보처리
기능의 약화로 인해 처리 정보의 양이 집중
적으로 증가하는 교차로에서 특히 사고 가능
성이 높다. 아울러 운전미숙보다는 공간에
대한 감각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이 고령과 무관하게 운전할 수 있다
는 자신감과 이동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으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그로 인해 반
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

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시 운전면허
필요한 인지능력 등 신체 건강에 대해 꼼꼼하게
검검해 의사의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돼
있으며, 진단서에 따라 갱신 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일련 사회와 제도가 고령 운전자에게 대
해 강제로 제한한다면 생계와 인권 등 또 다른
문제에 봉착될 수 있다. 구성원들의 배려와
양보, 여기에 국가의 제도가 적절히 맞물린
다면 고령 운전자 사고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본격 경쟁 전남도 안심은 금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핵융합 첨단
연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유치 공모에 전
남 나주를 비롯해 전북 군산, 경북 포항, 광주 등
4곳이 신청서를 냈다. 이른바 ‘인공태양 연구시
설’로 불리는 이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한 핵융
합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과 첨단 연구·산업 인
프라 구축을 골자로 총사업비는 1조2천억원에
이른다.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우라늄 핵분열 중
심의 기존 원자력에서 수소 동위원소 기반의
핵융합발전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기를 맞고
있다. 미래사회 ‘꿈의 에너지’ 패권을 쥐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우리나라도 가속도를 붙
이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난달 열린 실
명화에 참여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던 이유인
것이다.

나주는 전남도와 함께 일찌감치 미래산업 재
편 기회로 보고 공을 들여왔다. 국내 유일 에너
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와 한전을 비롯
한 670여개 전력 기업이 밀집해 연구·산업 생태
계가 집적화된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 하지만 안

도할 수 없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
들도 만만찮다. 군산의 경우엔 한국핵융합에너
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새만금 재생에
너지 국가실증단지 등 관련 연구기관이 인접해
있다.

과기부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의 궁극적 목표
인 상용화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전체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기술과 실증 기반을 확보하는 것
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을 지속 확장하고 있는 전남
이 우위에 섰다.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는 에너지
연구원의 직접 고용 인력만 300명 이상이며, 전
기·전자·초전도 관련 기업 유치와 스타트업 입
주를 촉진해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
으로 기대를 모은다.

첫 관문은 현장조사다. 이후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부지가 선정된다. 안정적 부지, 연구·산
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따는 당상이어도 안
심해선 안 된다. 전남도와 나주시, 유관기관·단
체, 도민이 ‘원팀’으로 뭉쳤다. 대한민국 차세대
에너지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최종 발표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6개월만의 광주공장 재가동 금호타이어 정상화 첫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지난 5월 화재 이후 6
개월 만에 생산을 재개했다. 2공장 전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가 없는 일부 공
정과 1공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속하게 재가
동에 들어간 것으로, 활기가 돌고 있다.

지역 경제계도 환영 입장이다. 광주상공회의
소는 “노사의 책임감 있는 협력으로 정상화 단
계에 진입해 제조업 안정과 고용 유지에 기여했
다”고 평가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큰 화재
에도 불구하고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한 합의를 끝
어내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밝
혔다. 산업계와 경제 전반에 반가운 소식이다.
금호타이어는 가능직 388명을 투입해 하루 4천
본 규모로 광주공장을 운영 중이며, 이후 생산
규모와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 초에는 일
6천본·1만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돼야 하겠다. 불이 나
기 전 광주공장에서는 연간 1천150만본을 생산
해 왔다. 앞서 노사는 2025년 고용안정·노사공동
발전위원회를 열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7

월말 재가동 특별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아울
러 추가 출근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근무 전 안전
교육이 이뤄진다.

금호타이어 구성원의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
줬다. 지역사회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하
게 협력해야 한다. 관계 당국과 함께 가능한 자
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불의의 대형 화재로
수개월을 멈춰 섰다. 그동안 생계 때문에 막막한
심정이었던 직원들은 이제는 출근할 수 있느냐며
안도하고 있다.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어 정
말 다행이라며 삼삼오오 애기꽃을 피웠다. 하지
만 복귀 연락을 받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다.

지역 제조업을 떠받치는 중추 기업으로 계속
역할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투트랙으로 병
행되는 합병 이전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 합평공장은 2028
년 1월 생산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 고용 안정이 최우선일 것이다. 다 같이 힘
을 모아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시민들의 바람을
깊이 새겨야 한다.

아침꽃은 詩

완벽한 타인

김효비아



여자는
현미경으로
세상에 모든 미세먼지를 찾아
가슴으로 껴안았고

[시의 눈]
안으로, 안으로 파고드는 존재와 밖
으로 밖으로 빠지고는 존재, 이 두 존
재가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 선행
하 분리되고 있다. 오묘하기 이를 데
없는 두 존재의 만남은 범상을 놓고
마주 맞기도 하고, 저 멀고 먼 우주의
끝에서 전혀 낯선 남으로 만나기
도 한다. 하나는 현미경으로 또 하나는 망원경으로. 돌려서 말하면 구
심력과 원심력의 맞대응이다. 구심력은 중심을 향해 작용한다. 지구를
도는 위성처럼. 원심력은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힘이다. 큰개바깥
바깥으로 끌리는 감각처럼. 현미경의 존재는 매사에 꼼꼼하고 치밀한
깨달음이랄까 있다. 망원경의 존재는 감성표현이 서툰고 무뎠을한 편
이다. 단순히 이를 대 없어 아니다. 심으면 그냥 두주해버린다. 회전
운동에서 보듯이 구심력은 원심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보조 힘이다. 원
심력이 강할수록 구심력의 효과는 빛을 발한다. 내뿜는 자를 잡아당기
는 힘 바로 구심력이다. 작은 반작용을 법 밖에서 전개하는 흥미진
진한 두 존재. 치밀함과 섬세함, 환관함과 덜어옴, 둘은 별도의 감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호보조의 역할을 다하려는 책무를 인식한
다. 완벽한 타인이 일상동태도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신의 발명품이자
흥미로운 존재론적 탐색 대상이다.

<윤상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 고 문 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 케 팅 본 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 영 지 원 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문 제 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